

마지막 행적 '블랙박스' ...사망원인 규명 중요한 단서되나

완도 실종 가족, 부검 결과 발표
사인 '불명' ...익사 가능성 거론
경찰, 차량 'SD 카드' 분석 의뢰
통상 2주...훼손도 따라 시기변동
차량 결합·사고 여부 등 정밀 감식

완도에서 실종된 뒤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조유나 양(10) 일가족에 대한 1차 부검이 진행됐지만, 정확한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못했다. 시신이 오랜 기간 물속에 잠겨 있었던 탓에 명확한 사인 규명이 어려웠고, 타살이나 질병 흔적 등이 발견되지 않아 한편으로 익사 가능성도 거

론되고 있다. 이로 인해 평소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온 조양 가족이 죽을까지 이르게 된 원인은 여전히 의문인 상태로 남아있다. 결국 경찰이 실종 차량에서 확보한 블랙박스가 조양 가족의 사망 원인을 밝혀줄 중요한 단서가 될 전망이다. 가운데 블랙박스 분석 결과와 함께 사인 규명까지의 한 달여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광주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조양 가족으로 신원이 확인된 시신 3구에 대한 부검을 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는 '사인 불명'이라는 구두 소견을 냈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익사도 배제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또, 시신의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명확한 사인을 밝혀낼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상이나

질병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체내 플랑크톤 검사 및 약·독극물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체내 플랑크톤 검사를 하면 사망자가 물에 빠지기 전에 숨졌는지, 물에 빠진 다음 숨졌는지 알 수 있다. 종합검사 결과는 약 한 달 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또 전남 바다에서 인양한 조씨의 차량에서 블랙박스 'SD카드'와 휴대전화 2대를 확보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디지털 포렌식센터에 분석을 의뢰했다. 이를 통해 조양 가족이 숨지기 전 행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분석은 통상 2주 가량 걸리지만, 바닷물에 잠겨 있었던 시간이 길어 훼손도도에 따라 예상보

다 늦어질 수 있다. 특히 이번 실종사건의 배경에는 '루나 코인' 투자 실패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조양 가족의 시신에서 제3자나 외부인에 의한 타살을 의심할만한 단서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암호화폐 투자 실패가 일가족을 극단적 선택에 내몰 배경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여기에서 전남 인양된 조양 가족의 아우디 차량 변속기가 주차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해당 추락 사고 원인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인양된 차량에서 조씨는 안전벨트를, 아내는 핸드백을 매고 있던 점이나 어머니 등에 얹힌 채 신발을 신고 있는 조양의 모습까지 고려하면 극단적 선택을 염두에 둔 모습으로 보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의문이다. 또, 운전석 문이 잠겨있지 않은 점도 의아한 지점이다. 경찰은 차량 결합이나 사고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정밀 감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기어봉이 P에 있는 이유는 다양한 추론이 가능하다"며 "외부 침입이나 충격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양 가족은 지난달 30일 오후 11시께 승용차로 완도군 신지면 한 펜션을 빠져나갔다가 6분 뒤 3km 떨어진 송곡항 인근 방파제로 향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 화면에 담겼다. 이후 순차적으로 휴대전화 신호가 끊긴 조양 가족은 29일만에 송곡항 앞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최환준·임재민 기자

미쓰비시 배상 책임, 누가 면죄부를 주려 해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지난달 30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쓰비시의 사죄·배상과 대법원 판결 즉각 이행 등을 촉구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사죄·조속 배상"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대위변제' 방안으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지난달 30일 오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방일한 한일 정쟁협약단은 일본 측과

'대위변제'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대위변제' 방안은 판결에 따른 배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닌 의무가 없는 자가 자발적 모금이나 출연을 통해 피해자한테 대신 돈을 지

급하는 방식이다. 시민모임은 "일제피해자들은 명백하게 인권 침해받은 '피해자'지만 우리 정부는 그저 이들이 '불우이웃' 정도로 인식하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며 "우리 정부는 피해자 인권 보호 책무를 저버려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쓰비시와 일본 정부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 및 조속한 배상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승현 기자

조유나 양 다녔던 초등학교에 추모공간 마련

재학생 치유 프로그램도 운영
교외 체험학습을 떠난 조유나 양(10)과 가족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조양이 다니던 초등학교에 추모 공간이 마련됐다. 광주시 서구 소재 A 초등학교는 지난달 30일 교내회의를 통해 재학생들이 조양을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교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조양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들은 학생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슬픔을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교육청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A 초등학교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알릴 수 없다"고 말했다. /홍승현 기자

'흥기 들고 활보' 외국인 테이저건 쏘 제압

경찰, 불안감 조성 혐의로 입건
한국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인이 흥기를 들고 주택가를 견뎌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맞고 붙잡혔다. 지난달 30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2시께 광산구 월곡동에서 흥기를 든 외국인 남성이 거리를 활보한다는 신고가 112상황실에 접수됐다. 강력범죄 현행범을 잡아야 할 때 내리는 대응인 '코드 0'을 발령한 경찰은 순찰차 3대를 현장에 급파했다. 신고 접수 3분 만에 월곡동 주택가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부의갑을 손에 들고 걸어가는 외국인 남성을 발견했다. 경찰은 테이저건을 겨누며 5차례 칼을 바닥에 내려놓도록 고지했다. 이 남성이 끝내 불응

하자 경찰은 테이저건을 쏘고 장봉을 사용해 칼을 손에서 떨어뜨려 제압했다. 한때 주택가에서 벌어진 당시 상황을 여러 주민이 지켜봤다. 경찰은 통역관이 도착하고 나서야 이 남성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다. 이 남성은 통역을 거쳐 "자취방에서 오리고기를 손질할 조리도구가 필요했다"며 "친구 집에서 부의갑을 빌려오던 길에 경찰과 마주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테이저건 사용이 지침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베트남 국적 20대 남성인 이 외국인은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입건됐고, 경찰 조사가 끝나자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인계됐다. /윤영봉 기자

전기차 환경부 무상보조 실시중

전기종 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장착 (10년 사용), 가정용 220V로 충전, 원동기 면허로 운전

2인승 오토바이 핸들방식

최대속도 50km / 주행거리 100km

적재중량 200kg

최대속도 47km / 주행거리 90km

안전필수 전복방지 (틸팅)기능

최대속도 60km / 주행거리 50km



이코 ev102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833만원	303만원	48만원	482만원



(캐노피 1만원)

나이스 3L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650만원	330만원	48만원	272만원



나이스 1L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본인부담금
	462만원	330만원	132만원



이마트 광주점
(광주터미널) 전시중!

친환경전기차 전라남도 대표 생산기업! **DAEPONG** 본사:광주 전남 영광군 대마면 전가리 133 (대마산) (자동차 산업단지내)

상담 061) 352-3010 내선 2번
문의 061) 872-8880, 1

고흥지사 : 010-2548-7111
광주지사 : 010-3925-2181
영광지사 : 010-3925-2181

광양대리점 : 010-5355-1292
나주대리점 : 010-3626-3848
함평대리점 : 010-2602-6051

장성대리점 : 010-2819-3546
전남 동부권역 : 010-2450-1954
전남 서부권역 : 010-3647-9709

전국대리점·취급점 문의 010-2034-0141